

커피 가맹점 창업 평균 1억8000만원 든다

공정거래조정원, 10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창업자금 비교

커피 프랜차이즈 중 이디야커피의 가맹점 수가 가장 많고 투썸플레이스는 연평균 매출이 가장 높음으로 나타났다. 백다방은 가맹점 증가율과 신규개점률이 가장 높음 반면 카페베네는 폐점률이 가장 높아 대비를 이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10개 커피 브랜드의 가맹본부 일반 현황과 가맹사업관련 정보를 담은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를 발표했다. 비교 대상은 이디야커피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베이, 백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커피, 파스쿠찌 등 10개 업체다. 스타벅스는 직영점만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는 없애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10개 커피 브랜드의 총 가맹점 수는 6510개였다. 브랜드별로는 이디야커피가 1577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카페베네 821곳, 엔제리너스 813곳, 요거프레스 768곳, 투썸플레이스 633곳의 순서였다.

지난해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은 1431개(22%)로, 전체 가맹점 다섯 개 중 하나꼴이었다. 반면 지난해 문을 닫은 가맹점은 424곳(6.5%)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160만원이고, 브랜드별로는 매장 규모가 큰 투썸플레이스가 4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파스쿠찌 3억6900만원, 할리스커피 3억5100만원, 엔제리너스 3억2900만원, 카페베네 3억800만원의 순서였다. 평당 연 매출액은 1000만원 정도이고, 브랜드별로는 백다방 2200만원, 이디야커피 1700만원, 요거프레스 1500만원, 커피베이 1300만원의 순서였다.

자산증가율은 (주)이디야의 이디야커피(119.2%), 매출액증가율은 (주)할리스F&B의 할리스커피(35.2%), 영업이익증가율은 (주)더본코리아의 백다방(73.3%)이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본부 재무현황은 커피 사업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전체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커피 외 다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 가맹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담하는 최초가맹금과 인테리어비(집기 설치비 포함)는 평균 2000만원과 1억5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커피 가맹점을 내리면 평균 1억8000만원 정도의 사업준비금이 필요할 셈이다.

브랜드별 사업준비금은 매장 규모가 큰 투썸플레이스가 평균 3억2686만원으로 가장 많고, 매장이 작은 커피베이는 5549만원으로 6분의 1 수준이었다. 평당 인테리어비는 백다방 805만원, 카페베네 602만원, 탐앤탐스커피 574만원, 투썸플레이스 569만원의 순서였다.

가맹점들은 매출 11만~88만원(매출액의 2.5~5%)의

창업 비용 커피베이 5549만원 최소

투썸플레이스 3억2686만원 최대

가맹점 월11만~88만원 로열티 부담

로열티를 부담하고 있다. 광고비는 가맹점이 전담하거나 가맹본부와 분담하는 곳으로 나뉘었다. 가맹점들의 계약 기간은 1~3년으로 비교적 짧아,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커피전문점에 이어 피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비교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커피 가맹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담하는 최초가맹금과 인테리어비(집기 설치비 포함)는 평균 2000만원과 1억5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목포 평화광장 인근 커피 프랜차이즈 밀집 상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조달청, 지역 벤처 창업기업 판로 지원 본격화

신규 '새싹기업' 23일까지 모집

기술력을 갖춘 광주·전남 벤처 창업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시장 판로지원이 본격화된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지역 벤처·창업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신규 '새싹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새싹기업은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달청의 벤처·창

업기업 지원제도이다. 2013년부터 '새싹기업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현재는 82개사가 지정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조달청은 새싹기업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오는 23일까지 신규 새싹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명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는 있지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기존에는 창업기업의 범위가 5년이었으나 이를 7년으로 확대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 가능하다. 특히 오는 10월 구축예정인 '벤처나라'에 제품을 등록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새싹기업은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지정한다.

광주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새싹기업에 지정되면 나라장터 엑스포 새싹기업관과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조계현 소장의

창업 이야기



소자본 부부창업의 경쟁력

소자본 창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창업형태를 추천하려면 끼꺼리 부부창업을 추천하고 싶다. 물론 평소에 대화가 잘 안 통하거나 사이가 불편한 부부라면 부부창업으로 인해 관계가 더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부부창업이란 사이가 좋은 부부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부부창업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은 리스크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분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소자본 창업에서 부부창업의 경쟁력이 강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유는 구인난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대개의 소자본 창업이 직원을 1~2인 이내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조차 요즘은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부부창업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롭기에 구인난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장사를 하다보면 매출이 잘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인건비에 대한 고정비용의 발생으로 매출이 안 좋을 때는 운영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창업은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고정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부부창업형 사업장이 일반 개인창업형 사업장보다 사업장의 운영수명도 상당히 길다.

세 번째는 오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기에 고용된 직원들이 책임감으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보다 훨씬 나은 수준의 좀 더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섬세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경쟁력은 실제 매출상승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두 사람 모두 성격이 무뎠던 부부라서 고객들에게 다정다감하지 못한다면 이런 장점은 소멸되고 만다. 네 번째는 절세를 꼽을 수 있다. 부부창업시 사업자등록을 동업형태로 하면 소득세 부분에서 절감효과가 난다. 다만, 부부일에도 동업자이기에 향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시 연대납세의무가 뒤따른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보면 상호 이해도가 높아지고 대화가 많아져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반대현상으로는 평소 알지 못했던 상대의 특성이 같이 일을 하다보면 서로의 단점이나 불성실함 무책임함 등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되어 되려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부부창업시 절대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고객들이 부부임을 아는데 고객들이 있음에도 곤잘 다투거나 서로에게 통명스럽게 대하면 해당 사업장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사실이다. 사업장과 가정은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다룰 일이 있어도 사업장 내에선 항상 화목하고 금슬이 좋은 부부로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라보는 고객들의 마음도 편하고 이상적이라는 얘기다.

부부창업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고객이 아니고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항상 서로를 응원해주고 감싸주는 화목한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음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